

2000 12 24 !

제 45 호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고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흥 의 변 하 튼 프
이 을 화 며 정 는
다 위 시 소
한 키 년
! 며 들
게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당신이 오시는
날입니다.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중이며 애타게 ..

당신이
오신다하니...
이 맘이 이렇게
착한 아이
눈동자처럼
뜯아집니다.

당신의 태어남을 인
해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Jesus Christ is born in you and me...!
Merry Christmas !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45 .

예 배 순 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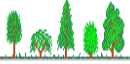
- 찬 양 찬양팀
- 중보기도 선교팀
- 기 도 학생
- 축하와 환영..... 신도배전도사님
- 말 씀 |도배전도사님
(2 : 25 ~33)
- 헌 금 헌금위원
- 주기도문 신도배전도사님

-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 소그룹 모여라 !

살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 만족합니다.
당신의 인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당신...

당신의 태어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태어남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삽니다....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표준새번역

개역

누가복음 2 : 25 ~ 33

누가복음 2 : 25 ~ 33

25.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25. |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26. |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 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자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27. |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28. |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 ,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9. :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0. |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31. |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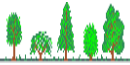
32.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2.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33. !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KJV

NIV

Luke 2 :25~33

Luke 2 :25~33

25. And, behold,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e same man was just and devout,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Ghost was upon him.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eon, who was righteous and devout.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26. And it was revealed unto him by the Holy Ghost, that he sh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26.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die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27. And he came by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after the custom of the law,

27. Moved by the Spirit, he went into the temple courts.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what the custom of the Law required,

28. Then took he him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28.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29. Lord, now lettest thou thy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thy word:

29. "Sovereign Lord, as you have promise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30. For mine eyes have seen thy salvation,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31. Which thou hast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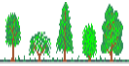
31.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sight of all people,

32.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thy people Israel.

32.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33.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33.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친구의 이야기...

2000/12/23(13:09) from 211.201.22.10

작성자 : : 2 , : 33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 지라도..

오늘 홍대 특차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그리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포기만 하구 있었던 것두 아니었습니다..
 위의 말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몇번을 찾아 보았습니다.
 없더군요..
 실망 많이 했죠
 그리고 울적한 마음에
 피로도 몰려오고
 암것두 하기 싫구 그래서
 집에서 빌려노쿠 안갖다준.. ! 아직 보지 못했던 비디오
 나 하나 볼까하구
 허리케인 카터란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실화래요..
 꼭들 한번 보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와 함께 제가 정말 권하구 싶은 영화입
 니다
 정말 저 안구건조증이라 눈물 원만해서 안흘리는데..
 외할아버지 돌아가실때두 몇 날 안흘린 눈물인데
 오랜만에 울었어여..
 형하구 엄마가 볼까봐..
 정말 감동 받았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루빈 카터리는 사람은 감옥에서 오래 살게되는게
 하나님의 뜻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에게는 힘든 나날이었겠지요
 하~
 저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두 받아들여야 겠다는 생각 다식금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믿으세요 그리고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을 위해
 양따시만한
 선물꾸러미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
 으세요?
 선물달라구...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냐
 에 한순자고 나
 니.. 너말에 그새
 갖다놓은 선물이
 있으지???

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이야기

고 구 마

평양소리꾼 허희정 옮김

내겐 고구마에 대한 숨은 사연이 하나 있다.
국민학교 1

" , . "

정지() |서 군불을 지피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
소리가 그 날 따라 천둥처럼 들렸다. 도둑이 제발저리는
경험을 그렇게 빨리 맛보게 된 것이다.

" . "

해질녘이면 언제나 무쇠솥에 물을 붓고 군불을 지피시
는 어머니. 4 :매는 차례로 불
려나가 세수를 하고 청소도 하였는데, , 언니
의 이름이 불려진 뒤에나 내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난
순순히 정지로 들어갔다.

" , ?"

해마다 겨울이 시작되면 산골에 사시는 고모댁에서 고
구마를 한 가마씩 가져와 그해 겨울밤 야식으로 얼마나
충분했는지, 커질 전에 가져다 놓은 아구까지 가득찬 고
구마 한 가마니가 내게는 늘 산더미만 했다. 밖에서 놀
다오니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래도 혼자있게
되면 머리가 빨리 돌아 심심풀이 일감이 생기는 것일
까? . 이미 가스콧은 할
딱이는 새가슴이 되어 쿵쿵 심장뛰는 소리로 우렁우렁
귀까지 울렸다. 그래도 한번 하기로 결심한 나의 과업
(?) . 어린 나이였음에도 해내고야 말리라는 턱없는 다
짐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고구마줄기 등으로 열기설기 막은 아구 밑에다가 손을
밀어 넣었다. . 손으로 더
들어보는 가마니속의 고구마는 거의가 아기머리통만한
것들이어서 내손에 잡히는 조그만 것을 찾기 위해 팔은
자꾸 밑으로 빠져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를 끄집어
냈다. . 살얼음이 얼
어있는 바깥 대야물에 얼추 씻어서는 단숨에 우걱우걱
억어치우고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책읽기와 일기쓰기
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 ?"

" . "

"....."

" . "

아아,

대쪽처럼 완고하신 아버지는 가훈을 ' ' 로 세우시
고는 당신의 자식들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바르게 키워
내셨다.

그런 반면에 나의 어머니는 새하얀 목련꽃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큰소리 내지 않으시며 이렇듯 딸아이의 비행(?) 어떤 물건에고 어미의 허락 없이는 몰래 손을 댄 적이 없던 딸년이 처음으로 감행한 도둑질??

넘어가도 될만한 작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어미의 척도로는 용납할 수 없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가만히 불려내신 것일까. , 꾸지람은 더욱 아니었던 어머니의 한마디.

" ~"

고구마와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어머니. 부엌에 들어오니깐 고구마가 말하기를 용순이가 몰래 하나 내어 먹었다고 하더라는..... 증거에 수두룩했다. 고구마 가마니 아구의 해발려진 구멍.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으니 흰 전분 가루의 흔적이 내 입 주위에, 그 중에 생생한 증거는 입술이 온통 갈색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언니, 오빠나 동생이 있는 데서 그 사실이 폭로되지 않음에 난 참으로 다행스러워 했다. 리는 확실히 수치스러운 그 무엇이었음을 맛보았다.

엄마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것과, 수치심에 목구멍을 아리는 덩어리를 삼키면서 용서를 빌 수밖에.

" , "

그리고 주어진 체벌로는 제워진 물로 맨 먼저 씻는 일 이었고, 그 사건이후 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먹거리 앞에서 몇 번의 유혹을 더 받기는 했으나, 그 때마다 깨네들이 엄마에게 일러바칠 것을 생각하면서 의연히 돌아섰다.

고구마는 결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어머니의 한마디 말씀은 항상 나를 빛 가운데 세웠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고 기막힌 한 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 ,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가. 나는 못하는 기 없제."

낮은 울타리91 6 ' '

그대요... ..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못하는 게 없으신...
요술 지팡이를 주는 산타보다 더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크리스마스



대학부 16 | 최원근

1. 크리스마스의 기원

크리스마스의 날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12 25 " " |서 지 키던 동지날을 채택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12 24 - 1 6) : 하나의 대축제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로마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 " : 채택했다.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 25 " " : 보고 이날을 축제일로 삼아 농업을 주관하는 Saturnalia 라고 불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274 Aurelian 로마 황제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다. " 태양이 다시 소생" (冬至 · 크게 기념하는 축제(Festival) .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 "(1:9) . 그리스도의 탄생은 " " . 12 25 일을 " " " |상의 빛" 12 25 !로 결정한 것은 이교도들의 " " " : 일치시킴으로 기독교를 이교도들에게 더욱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로마에서는 4 12 25 !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결정하고 이어서 1 6 !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현현일 (Epiphany)

크리스마스를 교회가 교리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4 . 고대 로마교회에서 기원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한 년대에 대해서는 335 354 년설이 맞서었다.

로마의 " "(500-544) 533 ! 부활절표를 작성할 때 계산한 데서 비롯된 시력기원의 기점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제로는 현재보다 4 .

로마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정한 이후 이는 동방교회로 퍼져나가 콘스탄티노폴리스 (Constantinople) (379) , 카파도기아(382) Antioch | 서는 크리스마스를 계속 반대해 왔었다. 동로마제국에서 12 25 , 1 6 !을 현현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지키게 된것은 431 ! 에베소 공의회 (Council of Ephesus) 432 ! 부터 이다.

예루살렘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계속 부정해 오다가 6 1 6 12 25 !로 분리하여 경축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아르메니아 지방의 교회에서는 1 6 .

크리스마스(Christmas) ' (Christ)' ' 미사' 'mas'(,) - 합쳐져서 생긴 말로서 ' ; ' ; ' 크리스도 기념일' .

2. ?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270 !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의 파타라지에서 출생한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자선심이 지극히 많았던 사람으로 후에 미라의 대주교(大主教) ,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한다. 선물을 나누어 주는 풍습은 성 니콜라스가 평상시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는 관습이다. 처음엔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구라파에 전해졌고, 그것이 화란 사람들에게 까지 전해졌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민해 감으로써 미국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숭배하는데, 그의 이름은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이다. 케덜란드 사람들은 산 니콜라우스라고 불렀는데, 특히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은 산테 클라스라고 불러, 자선을 베푸는 자의 전형으로 삼았다. 이 발음이 그대로 미국어화되고, 19 |기 크리스마스가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상상의 인물이 되어, 어린이들이 더 정답게 부르다가 ' 산타클로스가 흰 털이 달린 빨간옷과 검은 벨트를 두르고 긴 고깔모자를 쓴 모습은 미국 만화가 Thomas Nast 가 1863 . 처음에는 화가에 따라

3. (Christmas tree) ?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 처럼 성탄에 널리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의 동지제(冬至祭) , 로마축제 행렬에서의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옛날의 성목(聖木) 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있다.

크리스마스 휴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 독일에서 Martin Luther 크리스마스 전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이 Luther . 그는 상록수의 끝이 뾰족하여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이 보여 이와같은 나무를 준비하여 자기집 방에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 달아서 장식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상록수는 이교도들에게 있어서는 " " " |명의 상징" " |수 그리스도의 오심" |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전통이 "

현대를 사는 모든 성실한 종교개혁의 후예들, 정통 신앙의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신다. " |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23:1~2)

참고 및 인용 :
한국컴퓨터선교회 KCM(www.kcm.co.kr),
Yahoo! Korea 백과사전

당신을 향한 노래

글 구성 : 광야소리꾼 구자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자림

Merry Christmas..



딩동 덩동...
전보요... ~~~~~ !

하늘나라에서 급한 전보가 왔어요...

” ”

2000 ...

.. ...
생명없이 그저 살아가는 당신과 나를
위해... ..

전보요~~!!!

Merry Christmas...

친구들 보세요.....



다음주 2000 3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앞쪽으로 앉
아주세요.



12.25 1:30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청소년들
을 위한 축제 Power Festiv



12.29() 7:30 5·경관홀에서 온
누리티브콘서트가 있습니다. 가수의 길을 걷다
가 주님의 종의 길을 걷고 계신 조하문씨가 준
비하고 계십니다. ...



www.hosanna.net "말씀들은 옥상" 목상, 그림:김선호 채색:반정란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 도 배 전도사님
권 용 갑 전도사님

• !야소리꾼들
정민정, , , 이은주

POWERWAVE ~~~ 세상을 흔드는 물결 ~~~ 강야의 소리 !!!

